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 감옥서신, 24차, 위대한 신비의 청지기, 에베소서 3장

© 2024 댄 다코와 테드 힐드브란트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24, 위대한 신비의 청지기, 에베소서 3장입니다.

성경 연구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옥 서신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간 토론에서 에베소서 2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에서 1~13절을 위대한 신비의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앞서 암시했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언어를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할 미스터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의 언어로, 아마도 우리는 본문을 읽어서 본문을 풀어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들었으리라 생각하노라. 경륜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계시로 어떻게 신비가 나에게 알려졌는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단히 썼듯이,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나의 통찰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신비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동료 상속자, 같은 몸의 지체, 참여자 또는 공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능력의 역사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은혜를 받아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진 신비의 경륜이 무엇인지 밝히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기를 구하노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신비, 위대한 신비의 청지기. 저는 이 13절을 살펴보고 세 세션으로 나누어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신비의 일부, 신비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비의 계시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신비가 어떻게 그에게 알려졌는지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둘째, 청지기 직분과 그것이 수반하는 바를 살펴볼 것 입니다. 셋째, 우리는 13절을 간략히 살펴보고, 바울이 이것을 자신의 고난과 교회의 그를 향한 관심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신비로 번역된 단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사용했거나 다른 곳에서 동족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전통적으로 가정이 관리되는 방식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가족의 수장이나 그의 아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때때로, 그 단어는 가족의 수장, 특히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이사를 가서 다른 사람에게 집안일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부유한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러한 집안 관리의 청지기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스어를 안다면, 이 특정 단어의 어근에도 집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자매 단어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어에서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단어입니다. 가정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할 책임을 맡겼으므로, 그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사는 특권적인 직책입니다. 하찮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는 노예들과 집안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니다. 집사는 또한 그것을 담당합니다.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청지기 역할을 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또한 청지기 직분이 에베소와 그 주변의 독자나 신자들에 의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이해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청지기라는 단어, 그리스어 *oikonomia*를 행정 또는 사도직의 행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독자들에게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바울은 가정의 가장이 사용할 법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 행정 또는 구원이 문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은 자신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최고의 머리입니다. 가정과 가정의 머리,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관리하거나 가정이 가정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테스트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청지기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이해했으니, 이 신비가 청지기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이므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비의 계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척자이자 청지기이며, 신비가 알려진 것은 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태 표현을 주목하세요. 바울은 이 신비를 스스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어 표현인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표현에서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성한 대리인, 아마도 신이 그에게 이 신비를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나중에 이 신비를 다루거나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에게 계시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내용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사회와 다양한 민족 집단을 변화시킵니다.

이전 강의에서 논의했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신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자세히 말해줄 그 연합에 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이전 세대에게는 숨겨져 있었고, 바울은 과거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가.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신비의 내용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

네, 바울에게, 하지만 지금은 성령에 의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의 빛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여기서 선지자에 대한 언급을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합니다. 우리의 신약에서 우리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 구절, 선지자, 율법을 마주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부분 구약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아마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 뭔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카리스마적 용어로, 예언자가 와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그것을 우려스럽다고 부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언자들 중 일부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신이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알리셨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회중의 한 여인과 그녀의 속옷과 속옷 색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지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16에 쓰는 선지자의 종류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은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미리 말하거나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은사를 받고 그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있는 특징과 함께 제공됩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는 성령으로부터 예언하고,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예언의 남용과 오용에 대해 매우 우려하며 이를 명확히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신비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에 대한 기초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본질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신비를 받은 사람들로 언급하는 것은 오늘날 내가 의심스러운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들 중 일부에게 가서 그들이 당신에게 속임수를 쓰게 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비는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설명될 것입니다. 신비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간단히 썼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종종 간단히 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콜로새서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는 콜로새서에서도 신비를 언급합니다. 모든 징후에 따르면, 논쟁은 바울이 1장에서 신비를 언급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가 설명하듯이,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2장에서 그가 그들이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

바울은 이것이 지난 모든 세대에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인종 간 분열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하나의 유산을 공유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참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진 신비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한 연합은 오늘날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1장 10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실 것이라고 쓴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이 임무, 이 특권적인 지위를 받았습시다 .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신비의 선포자나 사자로 선택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몇 분 후에 읽을 것처럼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신비의 확장과 전개에 반대하여 일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아마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울이 그 구절에서 말했을 때, 이것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누구든 자랑하게 할 만한 가치감이나 자격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 신비가 선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특권적인 일을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는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이 신비를 수행하고 펼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매우 의식할 것입니다. 신비는 평범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권능의 강력한 작용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내용은 우리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의 시리즈에서 그리스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번역이 바울이 이 신비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의 언어적 구성을 전달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어도 엿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6절의 신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비는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 같은 몸의 지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를 알든 모르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가 동료 상속자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합성어를 사용하여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묶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가 같은 몸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실제로 몸의 친밀함과 동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합성어를 사용합니다.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여전히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합성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의 유업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 하나이고 확고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요점을 제시하는데, 이 신비와 이 신비의 전개되는 본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같은 몸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몸의 한 우산 아래 있는 다른 몸의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같은 몸에 속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밀접한 의미에서 함께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신비의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약속의 공유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의 약속의 공유자라는 의미에서 공유합니다. 저는 바울의 앞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펜타클로서 같은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주요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동료ja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밝혀진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 백성의 완전히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틀에서입니다. 그는 8절부터 이렇게 쓸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전파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감추어진 신비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가 알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함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직분과 그것이 수반하는 바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 특권이며, 이것은 대리인, 즉 가장 작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어 표현은 적어도 바울이 만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장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의식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거짓된 겸손함을 말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뜻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제 언어로, 오크라마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훔브라시 는 개의 겸손함을 뜻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미끼로 삼아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위대한 신비와 관련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이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자 중 가장 작은 자로 묘사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청지기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감옥에 있어도 이 메시지의 청지기로 남아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감옥의 벽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특권 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지구라고 말하는 복음. 타이밍.

바울은 청지기 직분에 대해 말하면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계시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신비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히고, 권세와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몇 가지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그가 하나님 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 신비를 받았을 때, 그는 이 분명한 목적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신비의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연합된 존재 자체가 하늘의 영역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에베소서 에 대한 이 토론의 초반 부분에서 천상 영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개념입니다.

천상계 는 비물질 세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영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영역에서 신은 자신의 통치를 행사하고,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고대 우주론에서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세들이 복음의 발전을 방해하고 싶어한다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 때, 그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명확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 전부터 숨겨진 신비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밝혀내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이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존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몸의 일원, 동료 상속자, 약속의 공유자로서 기능하고, 외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구별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와우! 영적 전쟁을 다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가 확고하고 강력하게 연합될 때 악한 영적 권세들이 거점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들은 와서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와서 불화를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와서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함께 살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저는 에베소서 3장에 대한 이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가 악한 영적 세계에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영향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인종적,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싶은 모든 것, 부족적,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나뉘게 할 때, 우리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통해 행동할 때 바울에게 알려진 신비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피터 오브라이언이 에베소서 3장에 대한 주석에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라는 사명을 되새기면서 쓴 것처럼, 바울은 위선에 빠지지 않고 자학하지 않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에 경탄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의식하고 있는지, 제 철자가 틀렸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스노그래스는 권세와 통치권에 대한 타격에 비추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에 높고 우주적인 역할을 할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 영역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증명되는 통로입니다.

오브라이언은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바울이 전도나 사회적 행동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추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덧붙인다. 대신 교회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이 새로운 다인종 공동체의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풍부한 지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한다. 그 현존은 하나님 자신이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풍부하고 다양한 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와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종종 반응을 보였고, 학생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적 영역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타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생각한 적이 언제였는지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썄요,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부차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영적 영역을 우리 세상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악한 자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사역 초기에 그는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계략과 영향력에 맞서 그들을 연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들은 악한 자와 싸웁니다. 제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지, 아니면 악한 영적 권세들이 영향을 미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지만 연합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확인했을 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한 영으로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봉사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모든 사건 이후에 한마음, 한 영, 함께함이 언급되고, 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옳습니다. 글썄요,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바울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알리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그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속박과 소심함이 아닌 담대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표현에서 사용한 두 단어를 좋아합니다. 특히 12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단어에서 그가 고전 그리스어로 담대함을 위해 사용한 단어는 여러분이 대중 연설이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방해나 위협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초기 교회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담대함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접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마의 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납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성경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365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1년 동안 매일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매일 정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두려움 속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의 요새나 주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강하다면 이 모든 악의 세력에 의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네, 저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이전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신 대로 사는 비효율성.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의 입장이 확고한 한,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 성공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평화의 왕자와 함께 자리를 찾으세요.

우리의 평화이신 분과 함께 자리를 잡고 , 두려움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당신의 발걸음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구 세계에서 이것을 따르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서구 세계 밖에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악한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신비는 바울에게 알려졌고, 이 신비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살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동료 시민, 공유자, 같은 몸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풀은 이 점에 대해 그 특정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모두 가치 있는 일임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제 말은, 그는 이 모든 일로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통에 대해 낙담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당신에게 쉬고 긴장을 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는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목적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잠시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이해합니까? 바울에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중요하고 특권적인 노력이며,
특권적인 부르심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에게 교회가 함께 사는 방식이 지역 사회의 평화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반향도 가져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줄 것입니다.
14절에서 21절. 이렇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름을 받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모든 세대에 걸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이 중보 기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다음 토론으로 엮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 중보
기도에서, 우리는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자세,

즉 태도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중보 기도의 대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기도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실례합니다. 자세에 관한 한, 그는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와우.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친족 언어의 비효율성 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지만 , 그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는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학적 토론에서 이름을 지은 사람 이 정체성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이 이름을 받는 사람은 그가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따라서 그는 이름으로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창세기에서 인류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때 발견되는 것처럼 이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로부터 나옵니다 . 저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올 기회를 주기 전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가족의 이름을 딴 분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들의 관심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소원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불신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지옥에 가도록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세상과 기독교 세상을 대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리는 특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디에서 왔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두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문을 열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는 모든 가족이 이름과 기도의 내용을 받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부요함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전에 에베소서에서 부요함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로 부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번영 전도사들이 말하는 부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즉 교회가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점에 유의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항상 풀어놓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청원의 이 핵심 측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돌아올 때 , 허락해 달라는 청원, 강화해 달라는 청원 , 채워져 달라는 청원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서신에서 패턴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거나 감옥 서신의 다른 책에서 그 구절을 사용하듯이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바를 밝힙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명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약함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떤 약함을 발견한다면, 그는 그들이 수동태, 즉 우리가 신성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에서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그는 독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세션을 위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하며,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기대합니다.

에베소서 에 대한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 속에서 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틀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공동의 열망 속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기도하거나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거나,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성장을 풍요롭게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계속해서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위대한 신비의 청지기, 에베소서 3장입니다.